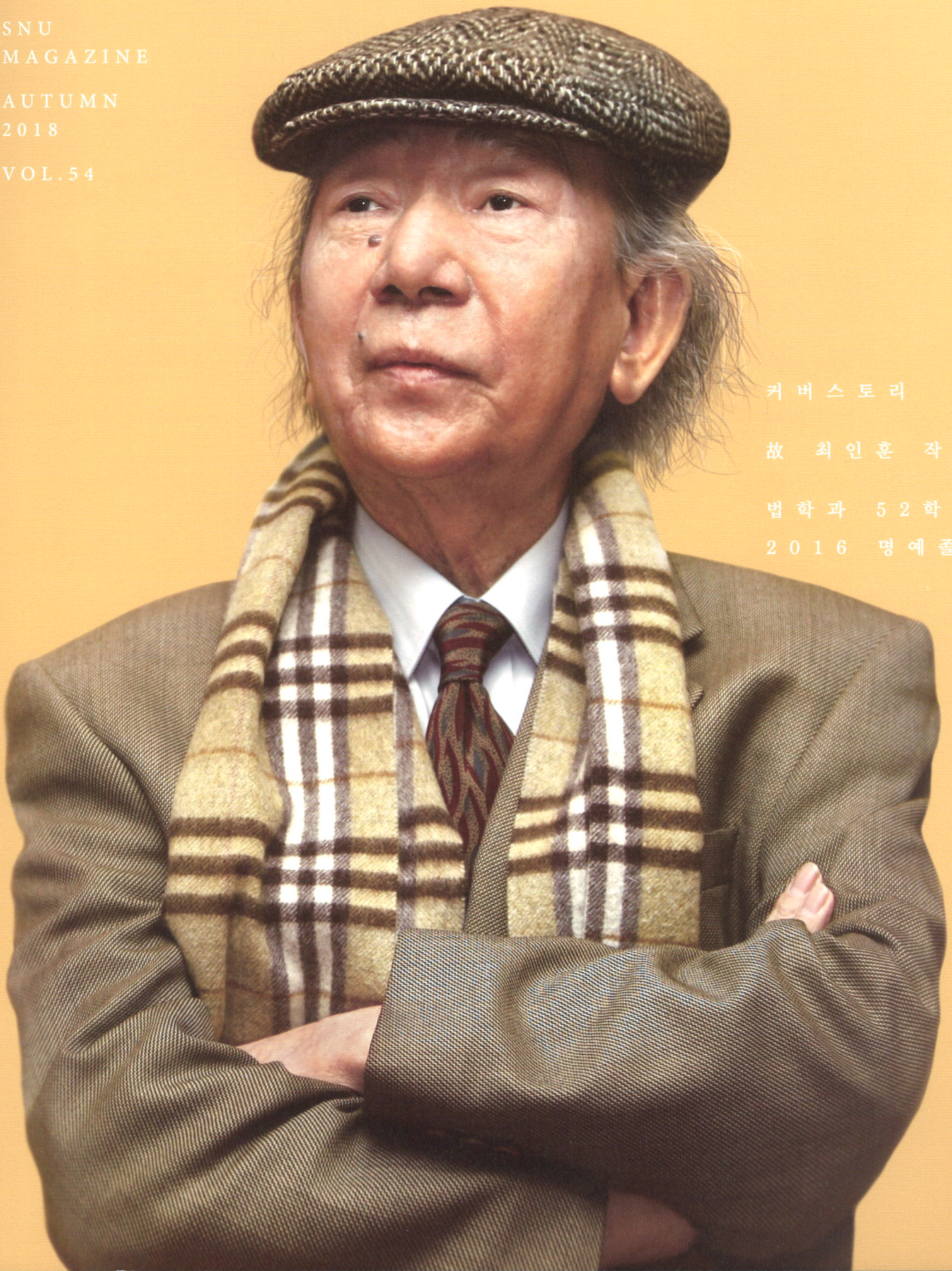
서울대사람들

SNU
MAGAZINE

AUTUMN
2018

VOL.54



커버스토리

故 최인훈 작가

법학과 52학번
2016 명예졸업

송상현 명예 교수

1963년 법과대학 졸업

30년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역임하고 소장에 취임해 국제사회에 법치주의를 정착했다.

"제게 서울대학교란 끊임없이 미래를 위한 기회를 창출해준 꿈의 원천입니다. 오늘날 급속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법학 분야는 제가 일찍이 모교에서 배운 바와 같이 평화, 인권, 정의, 복지,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규범 과학으로 거듭나 현재에는 통찰력 있고 행동하는 법률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법조 윤리를 지키면서도 판결을 통하여 새로운 국제법을 창조하고 더 나은 국제 질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능력과 덕목은 모교의 교실에서 배태되고 양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캠퍼스에서 공정, 주체성과 아울러 국제성, 합리주의와 인본주의,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 슬기로운 사색과 아울러 활기찬 행동, 치밀한 계산과 포용성을 기르면서, 체념 대신 분발하고 자학 대신 자존으로 선구자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8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 소감문 中 발췌

제72주년 개교기념식 개최 2

2018년 10월 12일(금) 교수, 직원,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 중강당에서 제72주년 개교기념식이 개최됐다. 박찬욱 총장 직무대리 교육부총장은 "현상 유지의 사고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혁신 없이는 대학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고 발전시키는 인재를 배출하기 어렵다"며 서울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평화 시대의 소명에 부응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를 완수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울대학교의 혁신에 앞장서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근속한 교수 및 직원, 그리고 봉사우수 학생 등에게 표창장을, '제28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에게 선정증서를 수여했다.

우수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3

경력개발센터는 2018년 하반기 채용시즌을 맞이해 국내외 기업들의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하고 예비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화)~5일(수) 대학본부 앞 잔디 광장에서 '2018 SNU Job Challenge 서울대학교 우수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이번 채용박람회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교육부, 고용노동부,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후원을 받아 국내외 공·사기업 총 158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기업을 찾고 보다 효과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가 기업에게는 우리 대학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